

< 비대면 수업에서의 장애대학생 학습권 침해 >

I. 서론

본고는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학습에서 침해되는 장애인 학습권에 대해 문제정의를 진행한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글로컬시대의 도시와 청년 수업의 일환으로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방문하여 현장탐방을 한 데서 비롯되었다. 사무국장님과 인터뷰 후,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교육 부분이 배제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대학교가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pdf 자료, ppt 자료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배움의 장인 교육 현장에서 오히려 차별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교육자료나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제가 없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차별이 해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법리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헌법 제 11 조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이다.¹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4 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²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여기서 수단이란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 점자자료 등이 포함된다. 그밖에도 최근 시행된 특수교육법 제 5 장 고등교육 부분에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교육의 편의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³ 그렇기에 교육 측면에서도 장애인 학생이 완전한 학습권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II. 본론

1.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현상황

특히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의 '장애대학생' 학습권 침해 문제에 집중하였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9 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대학생 재학생 수는 9653 명이다.⁴ 이들은 보조 교재, 추가자료 등 수업 자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다음은 코로나 19 이후 학습에 어려움을 겪은 대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이다. 한 중증 시각장애인은 "비대면 강의로 인해 장애학습도우미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프로그래밍 실습을 신청하였으나 화면을 도우미가 바로 설명해주기 어려워 진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⁵ 또 다른 청각장애인 학생은 경증 청각장애 확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학교의 지원을

¹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02.25)

²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³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21.04.21)

⁴ 교육부,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 이제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보도자료, 2020.06.29

⁵ 손지민, 비대면 수업 1 년... 원격 그늘에 가려진 학생들, 서울신문, 2021.03.10., 1 면, 기사 내 삽입된 인터뷰 자료 재인용

받기 어려웠다고 한다.⁶ 필기 도우미는 종종 청각장애 학생에게 우선 지원되었기 때문이다. 수업 영상에서도 자막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영상 내 음성을 인식하여 자막으로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구해야 했다. 이처럼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장애학생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2. 원인과 기존사례의 한계

이와 같은 비대면 수업 시 장애대학생 학습권 침해 문제의 원인을 기존사례에 대한 한계 측면에서 분석했다. 첫째, 예산 부족이다. 학습을 위한 각종 기기 및 프로그램 구입, 수어통역사 또는 속기사 고용, 교육지원인력의 정규직 채용 등 모두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학교 내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을 겪는 곳도 있다.⁷ 그럼에도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배정된 국고예산은 2020년 2335백만원에서 2297백만원으로 감소했다.

둘째,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문제이다. 교육부는 작년 3월, 8월 두 차례 비대면 원격 수업을 듣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기에 잘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⁸

셋째, 장애인 지원에 대한 언급이 모호하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원격교육기본법의 발의했으나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장애학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는 언급이 전부였다.⁹

마지막으로, 인식과 홍보가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원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영상 자막 지원 등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대학생 측면에서도 지원 프로그램을 놓치는 상황이 생긴다. 장애학생 학습권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더욱 교육 격차가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결론

앞선 조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서울에 2가지를 제안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의 자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앞서 교육부가 두 차례에 걸쳐 지원책을 제시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해 침해되는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서울시 내 대학교에 배포한다.

예를 들어, '장애학습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의 사용을 다양화하라(자막제작, 문자통역프로그램 구축, 과제 관련 원격보조 등)', '정기적으로 장애학생들의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라'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서울시 내 대학교가 이를 지킬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이를 서울시 대학교에 배포하고 이행을 독려한다면, 비대면 상황에서 보다 장애대학생들의

⁶ 노유림, 마스크 쓴 면접, 청각장애인은 두렵습니다, 국민일보, 2021.04.10., 1면, 인터뷰 기사 내 자료 재인용

⁷ 문다영, 장애인 학생들 "비대면 원격수업서 소외...학교도 외면", 연합뉴스, 2021.02.26., 1면

⁸ 노유림, 앞의 기사, 기사 내 교육부 지원책에 대한 내용

⁹ 이슬기, 코로나 19 1년, 장애인 원격교육권 또 '뒷전', 에이블뉴스, 2021.03.02., 1면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성이 없기에 잘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향후 교육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보다 상위의 원격교육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이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강제성 측면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현재는 권고 수준으로 먼저 시도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 내 대학교들에 장애대학생 학습권 침해 상황을 상기하고, 학습권 평등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지원책과 대학교 측에서의 노력을 언급함에 따라 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 처우 개선에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다음으로, '인식개선과 홍보 캠페인 진행'이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과 여러 장애대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학습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교 측에 가이드라인을, 장애대학생에게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이다.

가령, 가이드라인 항목에 다음과 같은 규정도 포함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배포와 동시에, 대학 본부는 이를 교내 메일 등으로 수신하고, 홈페이지 팝업을 사용하여 전교생 및 교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장애대학생 학습권 침해 실태'나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지하철이나 버스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부착하는 방법도 있다. 장애학생들에게도 알림톡, SNS, 카드뉴스 등 현재 진행되는, 또는 진행 예정인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알게 되면, 수업에서 자막이나 점자 자료 등을 지원하는 비율이 늘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장애학생들도 지원사업의 존재를 빠르고 쉽게 알게 되어, 놓치지 않고 필요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당사자가 아니라 해서, 겪고 있지 않다고 해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교육이, 정말로 모두를 위한 교육이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서울시, 정부, 교육부, 학생 등 다양한 집단이 함께 노력하여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 개선 및 완전한 평등을 위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교육부,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 이제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보도자료, 2020.06.29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02.25)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21.04.2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노유림, 마스크 쓴 면접, 청각장애인은 두렵습니다, 국민일보, 2021.04.10.

문다영, 장애인 학생들 "비대면 원격수업서 소외...학교도 외면", 연합뉴스, 2021.02.26.

손지민, 비대면 수업 1년... 원격 그늘에 가려진 학생들, 서울신문, 2021.03.10.

이슬기, 코로나 19 1년, 장애인 원격교육권 또 '뒷전', 에이블뉴스, 2021.03.02.